

설 밥상머리 화두는 '尹 탄핵·조기 대선·민생 안정'

지역 정치인들이 전한 명절 민심
“정권교체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민주주의 파괴세력 엄정수사 촉구
‘192석 야당 제 역할 못해’ 질타
국힘 “민주당에 등 돌린 민심 확인”

폭설 속에 설 명절 연휴를 보낸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밥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을 통한 국정 안정이 화두가 됐다.

특히 설 민심에 촉각을 곤두 세웠던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정권 교체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30일 광주·전남 지역민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의 화두는 단연 ‘윤 탄핵’과 ‘조기 대선’이었다.

양부남(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최근 광주시민이 피로로 느끼는 것과 다른 정당 지지율 등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보수층이 과표집된 결과이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빨리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정진욱(동남갑) 의원은 “연휴기간 만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 김승원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최병상 전남기독교농민회 회장 등 광주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30일 동구 YMCA에서 열린 ‘민주가족 합동세배’에서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난 시민들은 윤석열에 대한 분노, 힘든 민생에 대한 한숨으로 가득찼다”며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시민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다.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대책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전진숙(북구을) 의원은 “지역민들은 집권 이후 플랜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치투쟁을 넘어서 민생을 개혁

하고 내 삶의 변화를 민주당이 이끌 수 있느냐는 믿음을 줘야 한다. 효능감 높은 민생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올해 설 민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안정과 회복이었다”며 “현재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후보) 때보다 더 견고하기 때문에 강점을 잘 살려야 한다. 큰 흐름을 인위적으로 거스르려고 하면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광주시당위원장은

“조속한 내란특검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법원 폭동범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정 세력을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과물정부’가 등장하지 않기 위해선 민주당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빛의 혁명을 이끈 범민주진영과 함께 민주연합정부를 구성해 민주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 또한 조속한 탄핵

에 따른 조기 대선을 바탕으로 한 민생 안정이 이번 설 밥상머리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전했다.

주철현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과 더불어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많은 지역민들이 동의했다”며 “능력있는 새 대통령의 당선을 기반으로 무너진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밝혔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번 설 연휴는 무척이나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설렘도, 기대도 없는 초라한 명절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휴유증을 겪는 무안군민들과 정부로부터 거부당한 ‘농업4법’ 등 전남 지역민들의 상처가 깊다. 정치를 통해 어떤 답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 새해”라고 답했다.

박지원(해남·진도·완도) 의원은 “야당이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마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선에 대한 본격적인 거론은 없으나, 지난 대선에서 0.73% 차로 패배한 경험이 있는 만큼 다시 뭉치면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 2면에 계속

서울=김선욱·노병하·오지현·정성현 기자

전남도, ‘작년 1월 신생아’ 출생기본수당 첫 지급

생후 12개월부터 성인될 때까지
전남 거주민 매월 최대 20만원

전남도가 지난 2024년 1월 전남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출생기본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가 지난 2024년을 지

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저출생대책의 전환점이자 선도책으로 마련했으며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설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아로, 전남에 출생신고하고 보호자(부모)와 함께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원을 받게 된다. 전남도 수당 10만원(현금)은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군 수당은 시·군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아동이 1세(생후 12개월)가 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급 신청은 첫 생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올해 출생아가 2026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출생신고 시 전남 출생신고 시점부터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생아동이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주소지)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 등을 먼저 살펴 신청하면 된다.

전남 출생기본수당 시행으로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성인인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기준 4320만원, 둘째아 가정은 8640만원, 셋째아 가정은 1억29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신전남도인구청년인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양육가정 부모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한 정책이고, 앞으로 부모와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제22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5년 4월 20일(일) 오전 8시 출발

대회장소 승촌보

대회코스 승촌보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 가 비 40,000원 (기념품 지급)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5년 4월 3일(목) (선착순)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젤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